

## 한국주거의 재발견

우리나라 섬집-  
서해를 중심으로

박 선 주  
(국립박물관 박사)

## 1. 섬집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한반도'라는 말로 표현된다. 우리의 땅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바다와 산, 강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에 맞는 생활이 이루어지다보니 집의 모양새들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생긴 한반도의 지형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 그런데 그 한반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얼마나 많은 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관광 명소로 그리고 규모로 알려진 몇 개의 섬들, 그리고 일본과의 영해 분쟁으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울릉도와 독도, 이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나 우리의 서해와 남해에는 3,000개가 넘는 유무인도가 한반도의 한 부분으로 엄연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런 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여름이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교동도가 내가 섬집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곳이다. 늦여름이 막바지 고비를 힘들게 넘기고 있을 즈음으로 기억한다. 강화 창후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교동도에서 난 너무도 새로운 우리의 주거문화를 만났다. 몇백년씩 나이를 먹은 고가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정말 사람이 사는 냄새와 삶의 현상이 담겨 있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

들을 얻기 힘들다. 다행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나 밭이 있는 곳은 반농반어로 기본적인 식생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포구에 닿으면 그저 덩그러니 산 하나가 서있는 것 같은 섬은 그들이 바다에서 얻은 수확물을 육지로 가져와 다른 생필품으로 바꾸어 가야만 의식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에 육지와와의 연관성이 주거문화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된다. 특히 남북으로 긴 영토는 내륙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주거 형식을 보여주듯이 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섬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면서 그 모습은 약간의 변화를 만나는데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이 그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섬집들은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는 내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실히 볼 수 있다. 물론 기후와 생업이 기본틀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내륙과는 차이를 보인다. 겨울에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인 북서풍은 내륙보다는 섬에 먼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집을 경영하는데 적용이 되어 나타난다. 물론 하루 아침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집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기에 그 변화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 섬집에 관한 이야기를 논문의 형식으로 다루고자 하지는 않는다. 또한 남해와 동해에도 많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가장 다양한 형식의 유형을 보여

## 한국주거의 재발견

주고 있는 서해 섬집을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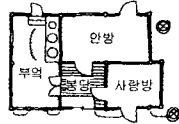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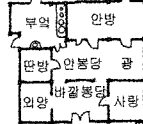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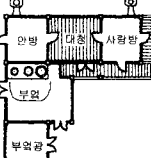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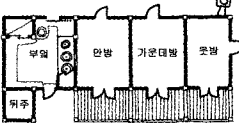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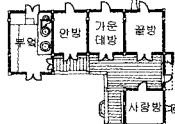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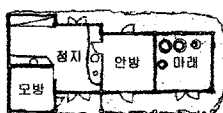
### II. 서해의 섬집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집의 공간구성방법에 있어 가장 많은 다양성을 보이는 곳이 서해가 아닌가 싶다. 물론 개인적으로 서해의 섬집을 많이 찾아다녀 구체적인 차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허나 실제적으로 남해의 섬집들을 다니면서 만난 집들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보면 一자형식으로 모습들을 지닌 것에 비하면 이곳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웅진반도권인 가장 북쪽 백령도에서 남쪽 전라남도 서쪽 바다에 분포하고 있는 집들의 평면을 보면 ‘방·부엌’의 가장 단순한 모습에서부터 □자형집까지 매우 다양한 형

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문자형 분류조차 쉽지 않은 복잡한 실들의 구성도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웅진반도권에서 경기도권에 분포하는 섬집들에서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 또한 통상적으로 민가를 분류하는 방식인 ‘문자형 유형 나눔’에 의하면 ‘一’字, ‘ㄱ’字, ‘ㄷ’字, ‘口’字, ‘ㄱ+ㄷ’字, ‘一+ㄷ’字 등으로 지붕의 모양에 따라 집을 나눌 수 있지만, 다시 평면의 구성을 보면 웅진반도권과 같은 북쪽지역에는 곁집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홀집으로 대표적인 평면이 대별된다. 다양성의 배경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긴 모양을 하고 있어 웅진반도부터 전라남도에 이르기 까지가 가장 많은 내륙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요 생업수단이 단순한 어업인 경우보다는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는 지역의 집들이 평면 구성이 다양하

|       | 一자집   | ㄱ자집   | ㄷ자집  | □자집   |
|-------|---|---|--|---|
| 웅진반도권 |  |  |  |  |
| 경기도권  |  |  |  |  |
| 충청남도권 |  |  |  |   |
| 전라북도권 |  |   |  |   |
| 전라남도권 |  |   |  |   |

서해도서민가의 대표적인 평면 유형들

## 한국주거의 재발견

고 규모도 큰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을 함께 하는 세대는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는 광이 필요하고, 또한 수확한 농산물을 갈무리하고 저장할 공간이 집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어업은 그물손질 등의 작업이 대부분 바닷가에서 이루어지고, 잡은 고기를 집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농업생산력은 가족의 수와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모든 가족이 함께 기거할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선박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어업은 주로 남자들의 일이었다고, 해류를 따라 한번 조업을 나가면 긴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돌아오기에 주거공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집의 평면과 입면 또는 출입문의 구성 방식은 자연지리

적인 배경 이외에 역사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기 이후 전라남도 해안 지역으로는 왜구들의 침략이 매우 잦아 나라에서는 섬에 사는 주민들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섬을 비우는 '공도화(空島化)'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지역 섬에 들어가서 지어진 집들을 보면 3칸규모의 작은 집에도 실의 출입구를 판문으로 하고 내부에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감실등을 설치한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외부에서는 매우 폐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역사적인 환경이 만들어 낸 주거문화의 한 모습인 것이다. 또한 '세겅집'<sup>1)</sup>이나, '육간팔자집'<sup>2)</sup>, '막집'<sup>3)</sup>, '파리집'<sup>4)</sup> 등과 같은 특수한 이름과 평면을 가진 집들의 존재도 섬이기 때문에 생겨난 주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서해도서 민가의 대표적 전경들

- 1) 백령도, 연평도 등의 북쪽에만 분포하는 형식으로 추운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형이다. 또한 처음부터 이러한 형식으로 지어지지 않고 생활해 가면서 필요한 공간의 추가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2) 교동도에서 찾아진 특수한 형식의 가옥으로 집이 구성된 방법에 의해 붙여진 집의 이름이다. 집의 크기가 6칸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8자(尺)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 3) 석모도에서 찾은 민가로 한국전쟁때 황해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거주를 위해 급하게 '막지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
- 4) 경기도 지역에서 □자집을 부르는 이름으로 위에서 집의 지붕을 내려다보면 가운데만 뚫려 있는 모양이 머리에 물건을 일 때 사용하는 '파리(또아리)'를 닮았다는 데서 붙여졌다.

## 한국주거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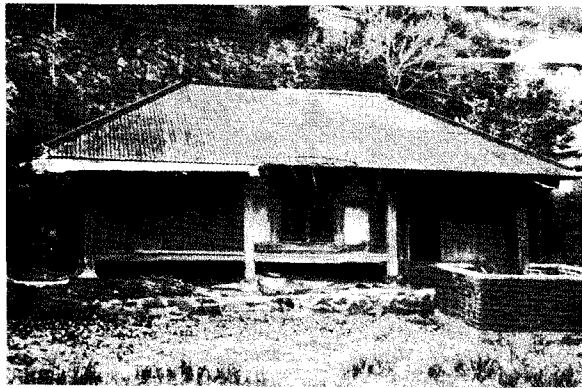
서해 섬집들의 다양성은 물론 자연지리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물품을 구하고 판매하기 위해 오갔던 내륙의 문화가 더 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지역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해류를 따라 어선이 항해하던 시절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연결 고리가 형성되면서 가장 가까운 내륙의 민가와 수평적인 유사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북쪽 지역 집들의 다양한 평면에 비해 충청남도 이남은 거의 一자집 유형의 평면 구성이 주를 이루고, 또한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一자집이지만 실들의 연결이 더 긴밀하게 구성되고 있음이 특징으로 보여진다.

### III. 남해와 동해의 섬집들

#### 1. 남해와 제주도

남해의 섬집들은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라남도의 집들은 섬들의 군락이 서해와 이어지기 때문에 서해 섬집 또는 전남 내륙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또한 유관한 물의 주거문화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전라남도 도서민가들이 경상남도에 비해 폐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와의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독자적인 유형을 만들어 왔



▲ 전라남도 청산도 민가

다. 물론 자연적인 배경도 큰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생활방식은 집을 구성하는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독자적인 살림을 꾸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우리주거문화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온돌도 제주도는 전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서간의 주거 양식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가지는 것도 특징이다. 겨울에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서측의 집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2. 울릉도

서해와 남해에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는 거에 반해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거의 유일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지각변동에 의한 결과이다. 울릉도는 겨울에 적설량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데기라고 하는 것을 집 전체에 두른다. 폭설이 내려 이웃과의 왕래 조차 힘든 겨울에는 외부로의 출입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데기로 둘러싼 집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작은 마당과 같은 공간을 내부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환경이 만들어내는 울릉도만의 특징인 것이다.

### IV. 계속 되어야 할 섬집 탐방

한반도 삼면에 펼쳐져 있는 섬의 수만큼 우리의 섬주거 문화에는 다양성이 찾아진다. 바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섬에서의 생활이 그 내부에서만 고립되어 영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을 비슷한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대표적인 민가의 유형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배경과 범위가 다르고 역사와 유통의 관계가 상이한 길을 이어왔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행정단위로 구역을 나눠 집을 분류해 대표적인 평면 유형을 말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는 것도 분명 필요한 연구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제 는 집을 보러가 마당에서 집의 평면 구성을 살피고 실측해

## 한국주거의 재발견

서 평면을 그리고, 방의 이름과 쓰임새를 기록하는 작업을 연구의 성과로 보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공간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 집이 지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어떤 일들이 그 공간 안에서 있어왔는지에 대한 시간의 기록이 필요하다. 집은 그저 관찰을 위한 오브제적인 물리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곳은 실제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작은 사회인 것이다. 그들의 일상, 비밀상의 생활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 거주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집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 집들은 내륙에 비해 더더욱 많은 이야기꺼리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주거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